

한국의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Material and Trends in the Study of Ancient Korean Wooden Silps

저자 (Authors)	전덕재 Jeon Deog-jae
출처 (Source)	목간과문자 9 , 2012.10, 15-32(18 pages)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9 , 2012.10, 15-32(1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7405
APA Style	전덕재 (2012). 한국의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목간과문자, 9, 15-3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4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의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전덕재*

- I. 머리말
- II. 낙랑과 백제목간
- III. 신라목간
- IV. 맺음말

<국문 초록>

본고는 2011년까지 발견된 한국 고대목간의 현황과 그것을 둘러싼 연구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2011년까지 낙랑 목간 120여 점, 백제 목간과 목간 부스러기 150여 점, 신라 목간 330여 점이 발견되었다. 삼국시대까지 목간은 付札 또는 荷札用뿐만 아니라 文書로서 널리 사용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종이문서가 널리 쓰이면서 문서용은 크게 줄어들고 주로 물품에 부착된 꼬리표로 사용되었다. 목간의 연구를 통하여 古代의 문서행정체계 및 중앙과 지방의 통치체제, 수취체계와 사회경제제도, 그리고 고대인의 일상 생활 모습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되었다. 앞으로 목간의 발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또 이미 발굴된 목간의 목서가 새로 판독됨에 따라 목간을 통한 韓國古代史像의 체계적인 복원작업도 크게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된다.

▶ 핵심어 : 지역아식미기, 좌관대식기, 성산산성 출토 목간, 문서 목간, 하찰목간

* 단국대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한국고대사 관련 문헌자료는 매우 零細한 편이다. 그것조차도 當代가 아니라 고려시대에 편찬된 2차 자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史料의 이용에 제약이 많다. 이와 같은 문헌자료의 한계는 1차자료인 金石文과 木簡을 활용하여 보완한다. 삼국시대까지 종지와 나무를 書寫材料로 並用하다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종지가 널리 사용되었다. 대체로 삼국시대에 목간을 文書와 典籍, 꼬리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다가 통일신라시에는 주로 메모용, 글자연습용, 꼬리표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었다.

일제식민지시기에 평양 남정리 116호분(彩簾塚)에서 목간 1점이 최초로 발견된 이래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대략 600여 점 이상이 확인되었다(〈표 1〉 참조).¹⁾ 낙랑 관계 목간을 제외한 순수한 한국의 고대 목간은 1975년 경주 안압지에서 처음으로 출토되었다. 1990년대 이래 저습지에 대한 고고학 발굴이 증가되면서 목간의 출토 사례가 급증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함안 성산산성을 발굴한 결과, 신라 목간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²⁾ 2004년에 당시까지 출토된 목간을 모두 모은 자료집인 『한국의 고대목간』을 출간하였다. 일반적으로 이것의 출간 이후 한국고대사학계에서 목간을 활용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한다.³⁾

본고는 지금까지 발견된 한국 고대목간의 현황과 그것을 둘러싼 연구동향을 정리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목간에 書寫된 墨書의 내용을 다룬 연구성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할 것이다. 목간의 형태 및 용도에 따른 분류와 관련된 연구성과,⁴⁾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고대목간을 비교 검토한 연구성과, 그리고 목서가 없는 목간과 목간이 발견된 장소 및 그 환경을 다룬 연구성과 등을 모두 망라하여 연구동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紙面 관계상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1) 이밖에 泰安船海底引揚木簡 33점, 泰安馬島1號海底引揚木簡 17점, 泰安馬島2號海底引揚木簡 57점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물품에 붙인 고려시대의 꼬리표목간이어서 본고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2007년 11월에 국립가야문화연구소로 개칭하였다.

3) 한편 함안 성산산성에서 다량의 목간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2007년에 한국목간학회가 창립되었고, 현재 이 학회를 중심으로 韓國 木簡學 定立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4) 한국의 고대목간은 형태에 따라 크게 編綴簡과 單獨簡, 목간 부스러기로 나눌 수 있고, 단독간은 다시 付札形, 多面形(圓錐形, 方形, 細長方形)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 목간을 典籍木簡, 文書木簡, 휴대용목간, 꼬리표목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II. 낙랑과 백제 목간

1. 평양 출토 낙랑 목간

평양에서 출토된 낙랑 목간은 현재까지 논어 죽간 110여 매를 포함하여 약 120여 매가 발견되었다. 1931년 평양 남정리 116호분(彩篋塚)에서 木牘 1점이 처음 발견되었고,⁵⁾ 해방 이후에 평양 정백동 3호분과 낙랑동 1호분에서 목간 3점 및 6점이 발견되었다고 알려졌다(윤용구, 2007). 1990년대 초반에 평양 낙랑구역 정백동 364호분에서 110여 매에 이르는 論語 竹簡과 3점으로 이루어진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가 발견되었다.

논어 죽간은 본래 編綴簡이었고, 현재 완전한 모양의 39매와 殘簡으로 추정되는 70여 매가 출토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내용은 제11권 先進篇과 제12권 顏淵篇에 해당하며, 通行本인 朱熹의 『論語集注』와 河北省 定州漢墓 출토 論語 竹簡과 비교하여 기본구성에 큰 차이가 없고 내용도 大同小異하다고 한다(이성시·윤용구·김경호). 김해 봉황대와 인천 계양산성에서도 제5권 公冶長篇을 書寫한 목간 1점이 발견되어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서도 編綴된 論語 木簡이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戶口簿는 初元 4년(기원전 45) 朝鮮縣을 비롯한 낙랑군 소속 25개 현의 戶口數를 합한 數值, 전년도 수치와의 增減 여부, 증가된 호구수를 기록한 것이다. 말미에 낙랑군 전체 85% 이상에 해당하는 호구수를 나열하고, 이들 주민 수와 관련된 어떤 설명을 기재하였다고 추정되나 글자를 정확하게 판독하기 어려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손영종, 2006; 윤용구, 2007; 윤용구, 2009). 정백동 364호분에서 출토된 논어 죽간은 기원전 1세기 중반에 한나라에서 儒家理念이 강조되어 識字層에서 유교경전을 널리 읽었음을, 호구부는 기원전 1세기 중반 낙랑군의 인구 현황과 통치방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2. 부여 출토 백제 목간

백제 목간은 1983년 충남 부여 官北里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래, 지금까지 150여 점이 발견되었다. 1995년에 부여 宮南池에서, 1998년에 쌍북리와 2000년에 陵山里寺址에서 목간이 여럿 발견되었고, 2006년 이후에 쌍북리와 구아리, 나주 북암리에서 백제 목간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목간이 70여 점, 목간 부스러기가 40점이며, 앞으로 부여지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 조사가 증가함에 따라 목간의 발견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 목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계기는 국립부여박물관에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능산리사지를 순차적으로 발굴한 결과, 목간 28점, 목간 부스러기 40점이 발견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목간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부여능산리사지출토 25번 목간(이하 번호로만 표기함)이다.⁶⁾ 길이 44cm의 4면 묵서 목간으로서 1면과 2면은 1일 단위로 支藥兒에게 식량(食

5) 木牘은 가로 폭이 넓은 方形의 목간을 이른다.

米)을 지급한 사실을 기록한 支藥兒食米記에 해당한다.⁷⁾ 支藥兒 또는 藥兒를 藥材를 지급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使役人으로 이해하는 견해(윤선태, 2007a), 藥材를 담당하는 職名으로 보는 견해(이용현, 2007b), 지약아를 藥材를 다루는 기관이나 관청으로 보고, 이 목간은 陵寺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매일 지급한 식량의 양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병호) 등이 제기되었다. 지약아식미기에 보이는 大升과 小升은 4升器와 2升器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佐官貸食記에 보이는 ‘甲’ 및 ‘半’과 더불어 6~7세기 백제 量制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3면에는 지방관인 道使, 몸이 까무잡잡한 小吏 猪耳, 彈耶方에 사는 牟氏, 牟祿 등이 묵서되어 있다. 탄야방은 『日本書紀』에 전하는 尼彌方, 牛頭方과 같은 지방행정구역으로서 檐魯와 관계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윤선태, 2007a). 한편 국어학계에서는 猪耳를 도치(돼지)로 再構하고, 이를 전형적인 鄉歌 표기에 의한 借字 語彙라고 주장하였다(김영옥, 2007). 3면은 부여 羅城 大門을 지키는 관리가 대문을 출입하는 지방관 및 지방 사람들에 관하여 기록한 간단한 메모로 추정되고 있다(윤선태, 2007a). 마지막으로 목간의 4면은 書寫 방향이 앞의 3면과 반대이고 ‘又十二石’ 등을 반복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아 글씨를 연습한 것으로 보인다.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목간 가운데 지약아식미기 다음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 1번 목간이다. 이것은 男根의 모양을 한 목간으로서 ‘道禡立立立’, ‘天’, ‘无奉用天’ 등이 묵서되어 있다. ‘禡’이 ‘도로의 제사’를 의미하는 글자라는 사실을 근거로 남근 모습의 이 목간을 道祭와 관련되었다고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었다(윤선태, 2007a). 한편 능산리사지에서는 창고와 관련된 목간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6번 목간(三月仲椽內上甗)을 들 수 있다. 여기서 ‘甗’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벼를 의미하는 ‘粃’의 略字로서 묵서는 ‘3월 중에 창고 내에 바친 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목간은 능산리사지의 창고 안에 있었던 벼를 담은 자루에 붙였던 付札木簡으로 추정된다(히라카와, 2010b). 9번 목간은 어떤 물품을 上納한 帳簿로 추정되나 일부가 파손되어 전체 내용은 알기 힘들다.

7번 목간에 ‘六口五方’이 묵서되어 있다.⁸⁾ 종래에 六口(部)는 수도를 6개로 구획한 행정단위, 5방은 지방의 행정단위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였다(박중환, 장미애). 그러나 최근에 六口五方은 백제의 중앙과 지방통치구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주의 만물 일체가 존재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며, 도교 또는 불교신앙과 관련된 文句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김영심)가 제기되었다. 5번 목간은 앞면에 三貴, 至仗 등 10여 명의 人名을 기재하고, 뒷면에는 물결무늬 모양의 記號를 縱으로 반복하여 묵서한 것이다. 무엇인가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하여 慰靈祭에 사용된 位牌

6) 支藥兒食米記初日食四斗二日食米四斗三日食米四斗(1면), 五日食米三斗大升六日食三斗大二七日食三斗大升二八日食米四斗大(2면) 食道使家□次如逢小吏猪耳其身如黑也道使後□彈耶方牟氏牟祿殿耶(3면) 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四石十二石又石又二石又二石(4면).

본고에서 사용한 목간 번호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 목간자전』, 예맥에 의거한 것이다.

7) 支藥兒를 ‘藥兒에게 지급하다’로 해석하는 견해(노중국, 2009a)도 제기되었다.

8) 書亦從此法爲之凡六口五方(1면) 人行之也凡作形之中了其(2면).

라는 견해(윤선태, 2007a)와 물결무늬 모양의 기호를 ‘水’의 異體字로 해석하여 백제 관리의 액막이 의례에 사용되었다는 견해(방국화)가 새로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3번 목간(□城下部對德疏加函)은 지명과 관동, 인명이 기재된 것을 근거로 관리의 신분증명서였다고 추정한다(윤선태, 2007a).

이밖에 능산리사지에서는 불교신앙 및 사찰 등과 관련된 목간도 여럿 발견되었다. 24번 목간은 4면에 묵서한 것으로서 판독이 매우 어렵다. 현재 판독되는 묵서 가운데 ‘伏願’이란 표현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사찰에서 무엇인가 祝願하는 내용을 담은 목간으로 추정된다. 11번 목간은 四言四句의 詩歌體로서 이른바 宿世歌가 묵서된 것이다(김영옥, 2003).⁹⁾ 前生の業에 의하여 이 세상에서 인연을 맺게 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 불교와 관련된 목간으로 보인다. 10번 목간에 寶熹寺, 19번 목간에 子基寺라는 사찰명이 전하며, 나머지 목간은 판독이 어려워 묵서의 내용을 알기 힘들다.

부여에서 출토된 목간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2008년 부여 쌍북리에서 발견된 佐官貸食記 목간(부여쌍북리280출토 1번 목간)이다.¹⁰⁾ 이것은 戊寅年, 즉 618년(무왕 17)에 사람들에게 穀食을 대여해주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사실을 기재한 帳簿이다. 佐官의 성격에 대하여 貸食을 담당하는 外椽部の 屬司로 이해하는 견해(노중국, 2009a)와 왕이 직접 임명하여 각 官司의 장관을 보좌하는 중간층의 관리로 이해하는 견해(정동준)가 제기되었다. 전자의 경우 좌관을 곡식을 대여해주는 주체로 이해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곡식을 대여받은 객체로 이해한 점이 차이가 난다. 곡식을 대여받은 사람이 국가에 上納한 것과 未納한 것을 계산하면, 貸食의 이자율은 50%였음이 확인된다.

이 목간을 일반 백성에게 곡물을 대여해주는 賑貸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 견해(노중국, 2009a)가 제기되었으나 근래에 이자율이 50%에 이른다는 점을 주목하여 貸食制는 고대 중국과 일본에서 관청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한 利殖事業, 즉 公出舉와 비슷한 제도였다고 이해하는 견해(미카미, 홍승우)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목간에 백제의 量制와 관계된 ‘半’과 ‘甲’이란 표현이 보이는데, ‘半’과 ‘甲’의 量이 얼마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半’은 글자의 뜻대로 바로 앞에 나오는 어떤 단위의 반($\frac{1}{2}$)을 의미하는 것으로, ‘甲’은 ‘반의 반’ 즉 앞 단위의 $\frac{1}{4}$ 로 이해하였다(미카미). 이에 대하여 최근에 ‘半’은 5升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甲은 $\frac{1}{4}$ 斗, 즉 2.5升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홍승우)가 새로이 제기되었다.

좌관대식기 목간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지닌 것이 쌍북리 208-5번지에서 발견된 목간이다.¹¹⁾ 여기에는 ‘外椽□鐵代綿十兩’이 묵서되어 있다. 外椽□(部)는 백제 22部, 즉 중앙행정관청의 하나였다(박태우). 쌍북리 근처에 外椽部에서 관장하는 창고가 존재하였고,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곡식을 貸食으

9) 宿世同業同生一處是非相問上拜白來(1면) 慧暉師藏(2면).

10) 戊寅年六月中 佐官貸食記 固淳夢三石 止夫三石上四石 佃目之二石上二石末一石 佃麻那二石 比至二石上一石末一石 翳利一石五斗上一石末一石(앞면) 素那一石五斗上一石末七斗半 今沽一石三斗半上一石末一石甲 佃首行一石三斗半上石末石甲 刀刀邑佐三石与 并十九石 得十一石(뒷면).

11) 이 목간은 『한국 목간자전』에 소개되지 않았다.

로 활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면이 ‘那尔波連公’으로 판독되는 부여쌍북리102출토 2번 목간은 倭系 백제관리와 관계된 것으로 추정된다(히라카와, 2009). 부여쌍북리현내들출토 1번 목간에 ‘奈率牟氏 丁一’, ‘定信不 丁一’ 등의 목서가 발견된다. 어떤 役事에 동원된 사람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帳簿였다고 보인다. 이밖에 쌍북리에서 출토된 목간에 德率, 上□ 등이 목서된 것들이 발견되었다.

634년(무왕 35)에 만든 부여 宮南池에서 1995년에 발견된 부여궁남지출토 1번 목간은 戶籍文書로 알려졌다(전덕재, 2006; 윤선태, 2007a; 노중국, 2010).¹²⁾ 여기에 수도의 행정구역인 ‘西部後巷’, ‘丁, 中口, 小口’ 등 연령등급제와 관련된 내용, 토지의 면적단위인 ‘形’ 등이 전한다. 丁-中-小로 구성된 연령등급제도는 중국 北朝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견해(윤선태, 2007a; 홍승우)가 제기되었고, 목간에 목서된 歸人을 歸化人으로 해석하여, 일반적으로 이 목간을 귀화인과 관계된 것이라고 이해했으나(이용현, 2006) 근래에 ‘歸’를 ‘婦’로 판독하는 견해(히라카와, 2010a)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밖에 부여관북리출토 1번 목간(二月十日兵与記/앞면 中方向□/뒷면)은 ‘兵器를 分與한 記錄簿’라는 종이문서에 付札된 표지 목간으로, 2번 목간(嶼夷/앞면, 烙印)은 백제 조정에서 嶼夷라는 지방관청에 사비도성의 궁궐출입용으로 나누어준 信符木簡으로 추정한 견해(윤선태, 2007a)가 제기되었다. 부여 구아리에서도 여러 개의 목간이 발견되었으나 판독이 어려워 그 성격을 가늠하기 어렵고, 금산 백령산성에서 출토된 목간 1점 역시 殘簡이어서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다.

3. 나주 복암리 출토 백제 목간

2008년에 나주 복암리 제철유적에서 목서가 확인된 목간 40여 점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목서의 내용을 나름대로 판독할 수 있는 것이 13점이고, 나머지는 판독이 거의 힘들다(김성범). 나주 복암리 출토 목간들은 백제의 지방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나주 복암리 출토 목간 가운데 나주복암리출토 2번(이하 번호로만 표기함)과 4번 목간이 戶口와 관계된 것이다. 2번 목간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고, 앞면에서만 목서가 확인되었다. 판독 가능한 목서를 제시하면, ‘兄將除公丁婦中口二小口四/□兄定文丁 妹中口一/定/前□□□’ 등이다. 除公은 촌락문서에 연령등급의 하나로 나오는 除公과 같다. 백제의 연령등급제도가 통일신라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려준다. 2번 목간은 모든 연구자들이 戶口文書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만, 그 성격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이것을 무엇인가의 목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帳簿로 이해하는 견해(이성시, 2010), 호적에 기초하여 어떤 가호와 관계된 호구 사항을 일부 발췌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히라카와, 2010a), 豆盼縣에서 戶別로 戶口損益을 統計하기 위하여 만든 기초작업용 문서목간으로 이해하는 견해(윤선태, 2010)가 제기되었다.

12) 西口後巷已達巴斯丁一 依活□□□丁 歸(婦)人中口四小口二邁羅城法羅原水田五形(앞면) 西一口夷(뒷면).

한편 이 목간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 제시하는 통행증명서(이용현, 2006), 또는 徙民給田籍으로 이해하는 견해(이정섭, 2010)도 제기되었다.

4번 목간의 내용은 매우 복잡하다. 목간에는 ‘大祀村□彌首山 □□四/丁一 中□□/□丁一 牛一/□水田二形得七十二石 在月三十日者/白田一形得六十二石/得耕麥田一形半’ 등이 묵서되어 있다. 여기서彌首山은 대사촌에 사는 가호의 戶主를 가리킨다. 목간에 丁이나 中□ 등의 戶口 상황, 미수간 가호가 소유한 牛 및 水田(논), 白田(밭), 麥田에서 수확한 곡물의 양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문서가 당나라에서 작성한 ‘西州浦昌縣九等定簿’이다. 이것은 戶等を 算定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丁 및 예속노동력의 수, 호구 상황, 家宅 및 采園의 수, 牛와 牛車의 수, 수확한 곡물의 양을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종래에 4번 목간의 내용이 서주포창현구등정부의 내용과 유사한 점을 근거로 하여 이것을 戶等を 판정하기 위한 기초문서였다고 주장한 견해(윤선태, 2010)가 제기되었다. 반면에 백제에서 資産에 기초하여 戶等を 산정하였다는 기록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4번 목간을 戶等定簿의 기초문서로서 보기 곤란하고, 豊凶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곡물 등을 수취하기 위하여 각 가호마다의 소출량을 조사하여 기재한 문서였다는 견해(홍승우)가 최근에 제기되었다.

2번과 4번 목간은 백제의 戶籍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문서라는 점에서 향후 고대 중국과 일본의 籍帳文書와의 비교 검토가 요망된다. 또한 백제의 토지면적단위인 ‘形과 結·負와의 관계, 그것을 사용하게 된 배경 및 1形の 면적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¹³⁾ 除公-丁-中-小로 구성된 연령등급제도가 통일신라의 연령등급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번 목간에는 ‘□□年三月中監數肆人/出背者得捉得安城’이 묵서되어 있다. ‘出背者’는 도망자를 가리키며, 목간은 4명의 감독자가 도망자를 득안성(충남 논산시 은진면)에서 捕捉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두힐현에서 도망간 자를 약 130km나 떨어진 득안성에서 捕捉한 것에서 7세기 전반 백제의 지방통치체제가 유기적으로 기능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이성시, 2010; 윤선태, 2010). 3번 목간에는 毛良夫里縣(전북 고창군 고창읍)으로 비정되는 ‘毛羅’, 半那夫里縣(전남 나주시 반남면)으로 비정되는 ‘半那’ 등의 지명이 보인다. 목간에 지방민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인명을 상단에, ‘奈率’, ‘扞率’, ‘德率’ 등의 관명을 보유한 관리의 인명을 하단에 구분하여 기재한 것을 근거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상단에 기재된 지방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지휘 감독하였다고 이해한다(이성시, 2010).

12번 목간에는 ‘軍那德率至安’이 묵서되어 있다. 군나는 백제의 屈奈縣으로서 현재 전남 함평군 함평읍으로 비정된다. 이것은 군나의 덕솔 至安이 豆汾縣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왔을 때 가지고 온 통행보증서와 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윤선태, 2010). 9번 목간(麻中練六四斤)은 麻製品에 부착된 것이고, 13번 목간은 글씨를 연습한 것이다. 이외의 나머지 목간은 글자가 일부만 판독되거나 묵서를 거의 판독하기 어려운 것들에 해당한다.

13) 종래에 ‘形’을 중국의 토지면적단위인 頃을 가리킨다고 주장한 견해(히라카와, 2010a)가 제기되었다.

Ⅲ. 신라 목간

1.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1975년 경주 안압지에서 신라 목간이 처음 발견된 이래, 지금까지 330여 점이 확인되었다. 신라 목간이 가장 많이 발견된 유적은 함안 성산산성이다. 이것은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에 위치한 石築山城이며, 동쪽 성벽을 쌓기 이전에 설치하였다고 추정되는 울타리시설 상부에 있는 지층에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다량의 목제품과 더불어 목서가 기재된 224점의 목간이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절대 다수가 수취한 곡물을 담은 자루에 付札된 꼬리표목간, 즉 荷札木簡이었고, 이밖에 문서목간 몇 점이 발견되었다. 목간의 작성 시기는 『일본서기』에 欽明天皇 22년(561)에 신라가 阿羅(경남 함안)의 波斯山에 성을 쌓았다고 전하는 점, 562년에 건립된 진흥왕순수비 창녕비에서부터 관등을 표기할 때 ‘支’字를 생략하였는데, 함안성산산성출토 2번 목간(이하 번호로만 표시함)에 ‘上干支’란 외위 관등이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561년 무렵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전덕재, 2008).

하찰목간에 기재된 목서는 ‘지명+지명+인명+곡물명+수량’, 또는 ‘지명+인명+곡물명+수량’, 그리고 ‘지명+곡물명+지명+인명+수량’의 형식으로 기재되었다. 일부 목간에서는 ‘지명+지명+인명+奴人(또는 奴)+인명+負’ 또는 ‘지명+인명+奴人(또는 奴)+인명+負’의 형식도 확인된다. 곡물은 피로 알려진 ‘稗’가 대부분이고, 일부 목간에서 보리(麥)가 발견된다. 수량의 표기는 ‘一’, ‘石’, ‘一石’으로 다양한데, 모두 ‘一石’을 가리킨다. ‘一’ 또는 ‘石’을 생략하여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아예 수량 또는 곡물명과 수량 모두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찰목간에 나오는 인명은 대체로 가호의 戶主 이름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목서는 ‘어디에 사는 누군가가 피 또는 보리 1石을 바쳤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仇利伐이란 지명이 목서된 목간에서 ‘負’字가 맨 마지막에 표기된 것들이 여럿 발견되는데, ‘負’의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負’를 처음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챙기거나 꾸러 놓은 물건, 즉 ‘짐’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한 견해(이수훈, 2004)가¹⁴⁾ 제기된 이래, 공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이해한 견해(김재홍, 2005), ‘(수취를) 부담한다’는 의미(이용현, 2007c), ‘등에 지고 운반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전덕재, 2007a) 등이 제출되었다. ‘負’에 대한 해석은 奴人(또는 奴)이 수취를 부담하였는가의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奴人 또는 奴가 나오는 목간은 26번(仇利伐 近德知一伐奴人 ○~), 35번(內恩知奴人 居助支 負), 36번(仇利伐 只即智奴 於非支 負), 37번(內只次奴 須礼支 負) 등을 비롯하여 모두 8점이다.¹⁵⁾ 노인의 성격에 대하여 일찍이 524년에 건립된 울진봉평신라비에 나오는 ‘奴人村’, ‘奴人法’ 등과 연결하여 신라

14) 219번 목간에 ‘此負刀寧負盜人有/方○日七冠村’이 기재되어 있다. 최근에 이를 근거로 ‘負’는 ‘짐’, 즉 ‘세금꾸러미’를 가리킨다고 봄이 옳다고 주장한 논고(윤선태, 2012)가 제출되었다.

15) 131번(仇伐未那沙刀永奴弥次兮稗石), 138번(太元礼密奴那智石), 167번(及伐城癸奴稗石) 목간에도 ‘奴’字가 보이나, 이것은 奴人 또는 奴婢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인명의 일부로 이해된다.

영토로 새로 편입된 변방의 복속민으로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었고(이성시, 2000; 이경섭, 2009; 이용현, 2009), 목간의 출토가 늘어남에 따라 奴人과 奴는 개인에게 예속된 私奴婢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전덕재, 2007a)가 제기되었다. 근래에 노인은 기본적으로 복속민의 성격을 지녔지만, 6세기 중반에 그들을 구리벌에 사는 개인에게 각기 예속시켜 관할, 통제하도록 하였고, 이후 그들은 점차 공민으로 포섭되었다고 이해한 견해(김창석, 2009)가 새로 제기되었다.

노인의 성격과 관련하여 논란이 분분한 문제는 바로 노인의 수취 부담 여부였다. ‘負’를 세금꾸러미로 이해한 연구자(윤선태, 2012), 노인을 복속민과 연계시킨 연구자(이용현, 2009)는 노인이 국가에 수취를 부담하였다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따를 때, ‘負’는 수취를 ‘부담한다’로 해석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6세기 중반 신라에서 노인이 수취를 부담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듯싶다. 만약에 노인이 수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負’는 ‘짐을 등에 지고 운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만 합리적이다.¹⁶⁾

하나의 목간에 복수의 地名이 묵서된 경우, 앞에 기재된 지명은 仇利伐, 甘文, 仇伐, 古陘, 鄒文, 夷津支 등이다. 감문은 경북 김천시 개령면, 구벌은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타는 경북 안동시, 추문은 경북 의성군 금성면으로 고증되고, 이진지는 오늘날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가를 알 수 없다. 구리벌에 대하여 종래에 경남 함안군 칠원면으로 고증한 견해(이경섭, 2005)가 제기되었으나¹⁷⁾ 일반적으로 충북 옥천군 옥천읍으로 고증한다. 한편 하나의 지명만이 기재된 목간에 전하는 及伐城, 須伐, 伊伐支, 買谷村, 勿思伐, 赤城은 각기 경북 영주시 순흥읍, 상주시, 영주시 부석면, 안동시 도산면과 예안면, 예천군 예천읍, 충북 단양군 단양읍으로 고증된다. 이상에서 열거한 지명들은 夷津支를 제외하고 모두 『삼국사기』 지리지에 전하는 어떤 郡이나 縣으로 고증되는 것이다. 학계에서 이처럼 어떤 군이나 현으로 고증되는 지명을 일반적으로 行政村이라고 부르고, 그 주위에 위치한 취락을 自然村으로 命名한다. 목간에 보이는 복수의 지명 가운데 앞에 나오는 것을 행정촌, 뒤에 나오는 지명을 자연촌으로 볼 수 있고, 하나의 지명만이 기재된 경우, 행정촌과 자연촌 모두가 확인되고 있다(전덕재, 2007a; 전덕재, 2007b).

하찰목간의 제작지와 관련하여 처음에 성산산성에서 모두 제작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되었지만(박종익; 후보돈, 2000), 목간마다 형태와 묵서의 서체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폐기되었다. 현재 郡 단위로 목간을 제작하였다는 견해(하시모토, 2009)와 행정촌 단위로 목간을 제작하였다는 견해(전덕재, 2007a; 이경섭, 2011b)가 제기되었는데, 행정촌마다 목간의 형태나 묵서의 서체가 다르다는 점, 목간에 ‘郡’이라는 표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행정촌에서 목간을 제

16) 『한국 목간자전』에서 144번 목간을 ‘赤城安尔加稗石負’로 판독하였다. 만약에 마지막 글자를 ‘負’자로 판독할 수 있다면, ‘負’는 ‘짐’ 또는 ‘부담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마지막 글자가 ‘負’자가 아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17) 구리벌을 함안군 칠원면으로 고증한 연구자는 최근에 견해를 수정하여 경북 안동시 임하면으로 고증하는 논고(이경섭, 2011b)를 발표하였다.

작하고, 書寫하였다고 보는 견해(전덕재, 2009)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촌 단위로 목간을 제작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당시 지방행정체계 및 수취체계는 州에 파견된 行使大等과 행정촌에 파견되어 그의 명령을 받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幢主, 邏頭, 道使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전덕재, 2007a). 이에 따른다면, 성산산성 출토 하찰목간은 上州에서 행정촌 단위로 수취한 피 또는 보리 등을 담은 자루에 付札되었고, 행사대등의 책임 아래 그것들을 낙동강 수로를 통하여 함안의 성산산성으로 운반한 다음, 거기에 주둔한 군인들이 곡물을 식량으로 모두 소비한 뒤에 자연스럽게 폐기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목간에 목서된 지명 가운데 本波, 阿那, 末那 등이 공통으로 들어간 경우를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일찍이 本波를 本彼縣과 연결시켜 경북 성주군 성주읍으로 고증하기도 하였으나(김창호) 本波가 공통으로 기재된 목간이 여럿 발견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현재 본파에 대하여 ‘어떤 지명의 發源이 되는 원 마을(취락)’을 가리킨다는 견해(전덕재, 2007a; 권인환, 2008), 어느 지역에서 중심지역에 위치한 聚落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이경섭, 2011b) 등이 제기되었고, 근래에 聚落으로 이해하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본파를 물품의 발송과 연관시켜 ‘본래(본디, 처음)의 바(밭줄, 참바)’ 또는 ‘본래(본디, 처음) 바(밭줄, 참바)로 묶음’으로 파악하는 견해(이수훈, 2010)가 제기되었다. 아나와 말나에 대하여 일찍이 인명과 관련된 표기로 이해하다가(이용현, 2007c) 근래에 들어 어떤 聚落을 가리킨다는 견해(전덕재, 2007a)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⁸⁾

함안 성산산성 목간 가운데 일부는 문서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된다. 127번 목간은 ‘丁廿二益丁四村’ 등의 목서가 보여서 성산산성을 쌓기 위하여 동원된 役夫에 관하여 기재한 문서로 추정된다. 218번 목간에는 ‘正月中에 比思伐(경남 창녕) 古尸阿尺과 夷喙, 羅兮○, 及伐只 등이 함께 전에 어떤 술 4개의 (또는 4두의)瓮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목서되어 있고,¹⁹⁾ 219번과 221번, 222번, 223번 목간은 판독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서목간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발견된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을 기초로 하여 중고기 신라의 지방행정체계와 수취체계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신라인의 문자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문서행정의 실태도 부분적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²⁰⁾ 함안 성산산성 목간은 앞으로도 계속 발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고기 신라 역사 연구의 지평을 크게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18) 근래에 아나와 말나를 ‘어떤 물품의 발송 책임자’로 이해하는 견해(이수훈, 2010), 어떤 방위나 위치의 지역(혹은 구역)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이해하는 견해(이경섭, 2011b)가 새로이 제기되었다.

19) 正月中比思伐古尸阿尺夷喙/羅兮○及伐只并作前○酒四○瓮.

20) 함안 성산산성에서 文書軸으로 題籤軸이 여러 점 발견되었다. 이것은 561년 무렵에 목간과 더불어 종이문서가 함께 竝用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2. 경주와 기타지역 출토 목간

함안 성산산성 다음으로 신라 목간이 다량으로 발견된 곳이 경주 月城 垓字와 雁鴨池이다. 1985년과 1986년에 걸쳐 월성 해자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어 목서가 있는 목간 31점이 발견되었다. 목간은 통일 이전인 6~7세기에 제작되었고, 주로 王宮이나 行政官廳에서 문서로 사용된 것이다. 31점 목간 가운데 목서가 완벽하게 판독된 것은 경주월성해자출토 2번 목간(이하 번호로만 표기함)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목서를 판독할 수 있을 뿐이다. 2번 목간은 4면에 목서가 있는 것으로서 吏讀가 활용된 행정문서에 해당한다.²¹⁾ 국어학계에서는 이두 관련 자료로서 주목을 끌었고(김영옥, 2007; 정재영), 고대사학계에서는 기본적인 행정문서의 套式을 갖추고 있어서 관심을 집중시켰다(윤선태, 2005; 이용현, 2006). 내용은 大鳥知郎이 白不雖紙 2, 3斤을 사라고 명령하자, 명령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음을 보고한 것으로 정리된다.

부분적으로 판독이 불안하긴 하지만,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이 6부의 里名이 전하는 8번 목간이다. 여기에 ‘牟喙 仲里, 上里, 下里, 新里’가 목서되어 있고, 部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阿舍里, 山南置上里 등의 里名도 보인다. 그리고 里名 위에 ‘受’ 또는 ‘不’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였다(윤선태, 2005). 6부의 里를 단위로 토지나 곡물의 受給 또는 축성이나 공사 등에 勞役을 징발한 사실과 관련된 행정문서로 추정된다(이용현, 2009). 이것은 469년(자비마립간 12) 6부에 里를 설치할 때, 里名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11번 목간은 ‘4월 1일에 전대등이 敎示를 내린 일(四月一日典大等敎事)’이 목서된 것이다. 전대등은 집사부의 차관인데, 국왕이 교시한 것을 전대등이 어떤 행정관청에 전달했음을 알려준다. 21번 목간은 藥材와 그 수량을 기재한 것으로서 의약처방전으로 이해되고 있다(윤선태, 2005). 나머지 목간은 판독이 어려워 그 성격을 알 수 없는 문서이거나 또는 글씨를 연습한 것에 해당한다.

경주 안압지에서 목서가 있는 목간 49점이 발견되었다. 목간의 대부분은 8세기에 東宮에서 사용한 어떤 食品을 담은 독이나 단지 또는 물건에 付札된 꼬리표목간이다. 목간에 목서된 식품의 종류를 보면, 高城醢(경주안압지출토 4번 목간: 이하 번호로만 표기함), 加火魚醢(35번 목간), 鹿醢(14번 목간), 豕五藏(13번 목간), 加火魚助史(7번 목간), 猪(水)助史(2번, 25번, 26번 목간), 獐助史(36번 목간), 生蚰(9번 목간), 汲上汁(15번 목간) 등이다. 醢는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음식을 가리키고, 汁은 먹거나 마시는 液汁을 말하며, 臛를 의미하는 助史는 臛의 借字 표기이다(하시모토, 2007). 生蚰는 전복을 가리키며, 豕는 돼지(豕) 또는 개(犬)나 소(牛)를 뜻하는 표기로 보이고(이용현, 2007a),²²⁾ 가화어는 가오리를 뜻한다. 그리고 高城醢는 강원도 고성에서 만들어 上納한 食醢를 말한다. 목서의 내용은 ‘몇 년 몇 월 몇 일에 어떤 食醢 또는 臛를 만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그 뒤에 식품을 담은 容器의 종류와 수량

21) 大鳥知郎足下万〇白/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斤/牒垂賜教在之後事若命盡/使內.

22) 이밖에 貂(담비)의 俗字이며 담비의 모피라고 보는 견해(윤선태, 2000)가 제기되었다.

을 표기한 것이 중심을 이룬다. 이와 같은 종류의 꼬리표목간을 통하여 8세기 신라 東宮의 먹거리를 살
펴볼 수 있다.

안압지 출토 목간에는 동궁의 행정기관과 관계된 것이 여럿 전한다. 4번과 10번 목간 및 『한국 목간
사전』에 소개되지 않은 목간에²³⁾ 洗宅이 묵서되어 있다. 한편 2번 목간 앞면 끝에 北廂이란 묵서가 있
음이 확인된다(하시모토, 2007). 세택은 국왕에 직속되거나 동궁에 소속된 행정관청인데, 주로 侍從과
文筆을 담당하였다. 北廂은 동궁 관청의 하나인 北廂典과 관련되었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성격은 알 수
없다. 일부 목간에 ‘辛審’ 또는 ‘辛審’이라고 묵서된 것이 발견된다(4번과 34번 목간). ‘辛審’으로 판독한
다음, 그것을 山神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고경희), 용왕제의 祭需인 秋收한 新物을 담당하는 동궁의
관직으로 보는 견해(윤선태, 2000) 등이 제기되었고, 근래에 이것을 ‘辛審’으로 판독하여 審上制度和 연
관시켜 이해하는 견해(하시모토, 2007)가 새로이 제기되었다. 아직까지 ‘辛’字가 지닌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審(또는 審)’字의 판독도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안압지에서 발견된 목간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이 一名 門號木簡으로 알려진 5번 목간이다.²⁴⁾
이것은 경비 인원을 궁문별로 배치하여 점검할 때에 사용하였고, 후에 경비원의 食米 청구 등에 활용되
었다고 이해된다(윤선태, 2006). 한편 27번 목간은 동궁의 대문으로 추정되는 策事門과 思易門의 열쇠
에 부착된 꼬리표목간으로 알려졌다(윤선태, 2006). 5번과 27번 목간은 8세기 동궁의 건물구조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밖에 21번 목간은 지방에서 동궁에 바친 어떤 동물(豸)과 관련된
물품에 부착된 것이고, 22번 목간은 접착제로 사용된 阿膠 등을 비롯한 물품의 受發과 관계된 문서목
간이다. 11번 목간은 궁중에서 사용한 깔개(郎席), 순가락(細次杙, 法次杙) 등에 관해 기재한 문서이고,
약재와 그 수량을 墨書한 16번 목간은 의약처방전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판독이 어려워 성격을 명확하
게 알 수 없는 것이거나 글자를 연습한 것에 해당한다.

경주 황남동에서 下椽, 仲椽과 같은 倉庫와 관계된 목간이 3점 발견되었고, 傳仁容寺址에서는 所貴
公과 金候公이 우물에서 용왕에게 제사를 지낸 사실을 기재한 목간 1점이(이재환), 경주박물관부지
에서 詩歌를 기재한 목간 1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경주박물관부지에서 발견된 목간에 향가가 墨書되어
있다고 주장한 견해(이승재)가 제기되어 국어학계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경주 이외의 지방에서 발견된 신라 목간으로 하남 이성산성에서 발견된 것 7점, 창녕 화왕산성 蓮池
에서 발견된 것 4점,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것 2점을 들 수 있다. 이성산성에서 발견된 목간 가운
데 하남이성산성출토 1번 목간만이 어느 정도 판독이 가능하다. 이것은 戊辰年(608) 정월 12일에 南漢
城道使가 須城道使村主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내용의 행정문서이다. 이 목간은 7세기 초반 지방행
정체계와 문서행정 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주보돈, 1991; 이경섭, 2011a). 창녕 화왕산성 蓮

23) 洗宅日之 二典前四〇子頭身沐浴〇〇木松簡/十一月廿七日典〇 思林/〇迎〇入日〇〇.

24) 隅宮北門迺 阿〇/才者在 同宮西門迺 元方在/馬叱下在 / 東門迺 三毛在 開義門迺 小巴乞在/金者在.

池 출토 1번 목간은 人形으로서 눈과 심장 등 주요 부분에 못이 박힌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國泰民安을 기원하거나 또는 治病, 祈子 등을 목적으로 연못의 龍王에게 제사를 지낸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보는 견해(김창석, 2010), 祈雨祭와 관계된 것으로 보는 견해(김재홍, 2009) 등이 제기되었다. 익산 미륵사지 출토 목간 2점은 거의 판독이 되지 않아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다.

IV.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한국 고대목간의 현황과 그것을 둘러싼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백제 목간의 다수는 문서목간이고, 일부 付札木簡도 확인된다. 함안 성산산성에서 200여 점이 넘는 荷札木簡이 출토되었고, 경주 월성해자 출토 목간은 주로 문서로서 사용되었으며, 일부 부찰목간도 확인된다. 그리고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간들은 물품에 付札된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목간에 의거하건대, 삼국시대까지 목간은 付札 또는 荷札用뿐만 아니라 文書로서 널리 사용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종이문서가 널리 쓰이면서 문서용은 크게 줄어들고 주로 물품에 부찰된 꼬리표로 사용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앞으로 목간이 더 발견되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함안 성산산성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목간이 더 발견될 것이다. 앞으로 새로 목간이 발견되거나 또는 기존에 판독이 어려웠던 墨書를 새롭게 판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리라고 기대된다. 목간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判讀이다. 지금까지 목서를 잘못 판독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목간을 가지고 연구할 때에 아무리 조심하고 신중해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행착오를 통하여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 역사연구의 本領이라면, 모험을 두려워해서는 목간 연구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시행착오를 통하여 한국 고대목간 연구가 크게 진전될 것이고, 나아가 그것을 매개로 하여 한층 더 구체적인 韓國古代史像의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역사학뿐만 아니라 언어학, 그리고 기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한국의 고대목간을 연구하여 이를 매개로 진정한 韓國木簡學의 체계가 갖추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²⁵⁾

25) 본 논고는 한국중앙연구원에서 2012년 6월에 간행한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15에 게재된 「Material and Trends in the Study of Ancient Korean Wooden Silps」의 한글 原本임을 밝혀둔다.

〈표 1〉 한국 고대목간의 출토 현황²⁶⁾

목간출토 유적	목간 연대	2004년	2006년	2011년	비 고
평양 남정리 116호분(채협총)	낙랑 2세기 후반~3세기 전반				1매(1931년)
평양 정백동 3호분	낙랑 기원전 1세기 후반				3매(1963년)
평양 낙랑동 1호분	낙랑 1세기 전반				6매(1981~1984년)
평양 정백동 364호분	낙랑 기원전 45년				戶口簿 3점 논어 죽간 110매 내외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 6~7세기	20	20	28	27매(목간)+40매(부스러기)
부여 관북리	백제 7세기	10	10	8	
부여 궁남지	백제 7세기	3	3	3	
부여 쌍북리	백제 7세기	2	2	19	
부여 구아리	백제 7세기			13	
부여 동남리	통일신라?			1	
금산 백령산성	백제			1	
나주 복암리	백제 7세기			41	
익산 미륵사지	통일신라?	2	2	2	
경주 월성해자	신라 6~7세기	29	29	31	
경주 안압지	통일신라 8세기	69	69	49	
경주 인왕사지	통일신라			1	
경주 박물관부지	통일신라	2	2	2	
경주 황복사지	통일신라 706년	?			죽간(佛經 寫經) 다수
경주 황남동	통일신라	3	3	3	
인천 계양산성	백제 또는 통일신라		1	2	논어 목간
김해 봉황대	통일신라	1	1	1	논어 목간
하남 이성산성	신라 6~7세기	13	13	7	
창녕 화왕산성	통일신라		3	4	
울산 반구동	통일신라 또는 고려			1	
함안 성산산성	신라 561년 무렵	94	94	224	
합계		248	252	441	441매(목간) + 120매 내외(낙랑목간) + 40매(부스러기) + α(황복사지 출토 목간)

투고일 : 2012. 9. 18

심사개시일 : 2012. 9. 20

심사완료일 : 2012. 10. 11

26) 목서가 없는 목간은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2004년과 2006, 2011년 목간 현황은 『한국의 고대목간』, 359쪽의 '〈표〉 한국 고대목간의 출토현황(2004년 4월 현재)' 및 『개정판 한국의 고대목간』, 19쪽의 '〈표 1〉 한국 고대목간의 출토현황 (2006년 1월 현재)', 『한국 목간사전』(2001년 11월 25일 출판)에 소개된 목간을 기초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비교의 부여 능산리사지 목간 현황은 『능산리사지-백제 중흥을 꿈꾸다-』, 119~141쪽에 소개된 목간(27매)과 목간 부스러기(40매)를 정리한 것이다.

- 고경희, 1993, 「신라 월지 출토 在銘遺物에 대한 銘文 研究」,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 목간사전』, 예맥.
- 국립부여박물관, 2010, 『능산리사지-백제 중흥을 꿈꾸다-』, 예맥.
-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나무 속 암호 목간』, 예맥.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한국의 고대목간』, 예맥출판사.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개정판 한국의 고대목간』, 예맥출판사.
- 권인환, 2008, 「고대 지명형태소 ‘本波/本彼’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2, 한국목간학회.
- 김성범, 2010, 「나주 복암리 목간의 判讀과 釋讀」, 『목간과 문자』5, 한국목간학회.
- 김영심, 2009, 「扶餘 陵山里 출토 ‘六部五方’ 목간과 백제의 術數學」, 『목간과 문자』3, 한국목간학회.
- 김영욱, 2003, 「백제 吏讀에 대하여」, 『구결연구』11, 구결학회.
- 김영욱, 2007, 「고대 한국목간에 보이는 釋讀表記」, 『구결연구』19, 구결학회.
- 김재홍, 2005,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과 촌락사회의 변화」, 『국사관논총』106, 국사편찬위원회.
- 김재홍, 2009, 「창녕 화왕산성 龍池 출토 목간과 祭儀」, 『목간과 문자』4, 한국목간학회.
- 김창석, 2009, 「신라 중고기의 노인과 노비-성산산성 목간과 봉평비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54, 한국고대사학회.
- 김창석, 2010,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목간의 내용과 용도」, 『목간과 문자』5, 한국목간학회.
- 김창호, 1998,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에 대하여」, 『함안 성산산성』,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노중국, 2009a, 「백제의 구휼·진대정책과 좌관대식기 목간」, 『백산학보』83, 백산학회; 2010,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 노중국, 2009b, 「백제의 醫·藥 기술의 발전과 사찰의 의료 활동」, 『물질문화와 농민의 삶』(문화로 보는 한국사2), 태학사; 2010,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 노중국, 2010, 「戶口 파악과 호적의 정비」,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 미카미 요시타카(三上喜孝), 2009, 「古代東アジア出擧制度試論」,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雄山閣.
- 박종익, 2000,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와 목간」, 『한국고대사연구』19, 한국고대사학회.
- 박중환, 2001, 「부여 능산리 발굴 木簡 豫報」, 『한국고대사연구』28, 한국고대사학회.
- 박태우, 2009, 「목간자료를 통해 본 사비도성의 공간구조-‘外椽部’銘 목간을 중심으로-」, 『백제학보』1, 백제학회.
- 方國花, 2010, 「부여 능산리 출토 299번 목간」, 『목간과 문자』6, 한국목간학회.
- 손영종, 2006, 「락랑군 남부지역(후의 대방군지역)의 위치-‘락랑군 초원4년 현별 호구다소□□’목간을 중심으로-」, 『력사과학』198, 조선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 윤선태, 2000, 「신라통일기 왕실의 촌락지배」,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윤선태, 2005, 「월성해자출토 신라문서목간」, 『역사와 현실』56, 한국역사연구회.
- 윤선태, 2006, 「안압지 출토 ‘門號木簡’과 신라 동궁의 경비」, 『한국고대사연구』44, 한국고대사학회.
- 윤선태, 2007a,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 윤선태, 2007b, 「백제의 문서행정과 목간」, 『한국고대사연구』47, 한국고대사학회.
- 윤선태, 2010, 「나주 복암리 출토 백제목간의 용도」, 『6~7세기 영산강유역과 백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개소 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윤선태, 2012,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의 재검토」, 『사림』41, 수선사학회.
- 윤용구, 2007, 「새로 발견된 낙랑목간-樂浪郡 初元四年 縣別戶口簿-」, 『한국고대사연구』46, 한국고대사학회.
- 윤용구, 2009, 「平壤出土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 研究」, 『목간과 문자』3, 한국목간학회.
- 이경섭, 2005, 「성산산성 출토 하찰목간의 제작지와 기능」, 『한국고대사연구』37, 한국고대사학회.
- 이경섭, 2009, 「신라 중고기 목간의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이경섭, 2010, 「궁남지 출토 목간과 백제사회」, 『한국고대사연구』57, 한국고대사학회.
- 이경섭, 2011a, 「이성산성 출토 문자유물을 통해서 본 신라 지방사회의 문서행정」, 『역사와 현실』81, 한국역사연구회.
- 이경섭, 2011b,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꼬리표(荷札) 목간의 地名 문제와 제작 단위」, 『신라사학보』23, 신라사학회.
- 이병호, 2008, 「부여 능산리 출토 목간의 성격」, 『목간과 문자』1, 한국목간학회.
- 이성시, 2000, 「한국목간연구의 현황과 함안 성산산성 출토의 목간」, 『한국고대사연구』19, 한국고대사학회.
- 이성시·윤용구·김경호, 2009, 「평양 정백동364호분출토 죽간 ‘논어’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4, 한국목간학회.
- 李成市, 2010, 「韓國古代社會における羅州伏岩里木簡の位置」, 『6~7세기 영산강유역과 백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개소 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이수훈, 2004,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稗石과 負」, 『역사와 세계』15, 부대사학회.
- 이수훈, 2010, 「성산산성 목간의 本波와 阿那·末那」, 『역사와 세계』38, 부대사학회.
- 이승재, 2012, 「목간에서 찾은 신라 詩歌 二首」, 제42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 이용현, 2006, 『한국목간기초연구』, 신서원.
- 이용현, 2007a, 「안압지 목간과 동궁 주변」, 『역사와 현실』65, 한국역사연구회.
- 이용현, 2007b, 「목간」, 『백제의 문화와 생활』(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1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이용현, 2007c,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負, 本波, 奴人 試論」, 신라사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 이용현, 2009, 「한국의 목간과 금석문의 상호교차연구-‘奴人’, ‘受’-」,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 국

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 이재환, 2011, 「傳仁容寺址 출토 ‘龍王’ 목간과 우물·연못에서의 제사의식」, 『목간과 문자』7, 한국목간학회.
- 장미애, 2010, 「무왕의 세력기반으로서 익산의 위상과 의미」, 『한국고대사연구』60, 한국고대사학회.
- 전덕재, 2006,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 전덕재, 2007a,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내용과 중고기 신라의 수취체계」, 『역사와 현실』65, 한국역사연구회.
- 전덕재, 2007b, 「중고기 신라의 지방행정체계와 郡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48, 한국고대사학회.
- 전덕재, 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신라문화』31,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 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목간과 문자』3, 한국목간학회.
- 정동준, 2009, 「佐官貸食記 목간의 제도사적 의미」, 『목간과 문자』4, 한국목간학회.
- 정재영, 2008, 「월성해자 149호 목간에 나타나는 이두에 대하여—설총 當代의 이두 자료를 중심으로—」, 『목간과 문자』1, 한국목간학회.
- 주보돈, 1991 「이성산성 출토 목간과 도사」, 『경북사학』14, pp.1~21; 2002,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 주보돈, 2000,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기초적 연구」, 『한국고대사연구』19, 한국고대사학회.
- 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2007, 「안압지 목간 판독문의 재검토」, 『신라문화연구』1, 국립경주박물관.
- 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2009, 「城山山城木簡と六世紀新羅の地方支配」,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雄山閣.
- 홍승우, 2011, 「한국 고대 율령의 성격」,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히라카와 미나미(平川南), 2009, 「백제 왕도 출토 ‘連公’ 목간—한국 부여 쌍북리유적 1998년 출토 부찰—」,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53.
- 히라카와 미나미(平川南), 2010a, 「日本古代の地方木簡と羅州木簡」, 『6~7세기 영산강유역과 백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개소 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히라카와 미나미(平川南), 2010b, 「正倉院佐波里加盤付鳳文書の再検討」, 『日本歴史』750, 日本歴史學.

〈Abstract〉

Material and Trends in the Study of Ancient Korean Wooden Slips

Jeon Deog-ja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ancient wooden slips that have been discovered by 2011 and conducts a summary of the overarching research trends. All in all, some 120 Lelang wooden slips, 150 Baekje wooden slips and shavings, and 330 Silla wooden slips have to date been uncovered. Up until the Three Kingdoms period, wooden slips were widely used, not only for labeling and listing purposes but also as a means of documentation. The widespread use of paper documents during Unified Silla coincided with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use of wooden slips for documentation purposes, with such resources increasingly being used mainly as labels attached to goods. Research on wooden slips has contributed to furthering scholars' understanding of the ancient document administration system, the ruling structure in the central and local areas, the tax and socio-economic systems, and the everyday lifestyle of ancient people. In this regard, the continued excavation of wooden slips and advent of new interpretations of existing wooden slips is expected to further invigorate the practice of Korean ancient history based on such wooden slips.

▶ Key words : Jiyaga sikmigi, Jwagwan daesikgi, wooden slips excavated in Seongsan Fortress, document slips, label tags (hachal mokgan)